

한암·서암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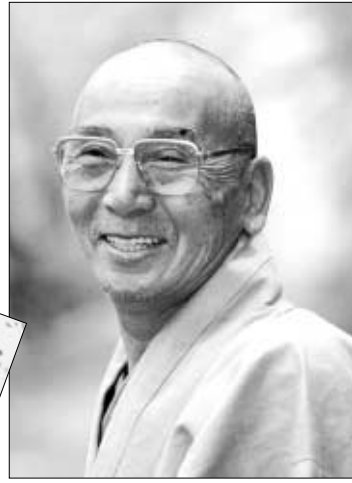
‘할’

한암 대종사 지음 / 홍신선 주해
휴먼북스 / 1만원

“내가 먼저 실행한 뒤에 말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믿고, 내가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믿지 않나니, 믿지 않는 말을 하는 이는 어리석은 범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이는 성현이다.”
(‘할’ 중에서)

“스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부처님과 다른 옛 성현들이 남김없이 좋은 말씀을 해놓았지 않는가? 하나라도 실천해라.”
(‘소리없는 소리’ 중에서)

조계종 종정으로서 20세기 한국 불교계를 이끌었던 한암 대종사(漢岩·1876~1951)와 서암(西庵·1917~2003)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담은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우선 <할>은 한암 스님의 활구 법문을 시인 홍신선씨(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현대어로 풀어쓴 대중적 주해서다. 그리고 <소리없는 소리>는 지난 3월 문경 봉암사에서 입적한 서암 스님을 모신 시자(侍者)들의 기억속에 묻어둔 스님의 자취와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소리없는 소리’

서암 스님 시자 엮음
시월 / 8천5백원

30년대 기고문·설법·편지 등 정리

“용맹·견실심 일으켜야 결실 가능”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오대산에서 수행한 한암 스님은 높은 문장력을 지녔으나 평소 저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스님이 생전에 남긴 책이라고 <일발록>이 유일했으나 1941년 월정사 화재로 소실됐다. 이후 95년 한암 문도회가 <한암일발록>을 간행했으나 이것마저도 문중에서 돌려보는 데에 그쳤다. 이번 책 <할>은 한암스님의 높은 뜻과 고매한 설법을 일반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할>은 1930년대 불교잡지에 실린 한암스님의 기고문과 설법, ‘선문답’ ‘참선곡’ ‘선원규례’, 경봉·탄허 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허 스님에 대한 행장 등이 들어 있다. 평소 참선과 교리 공부를 강조한 스님의 글을 모아 놓아서인지 감성보다는 이성과 논리가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한암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결단코 한번 해보겠다는 용맹심, 정직심, 견실심을 일으켜야 크고 작든 간에 모두 이뤄 낸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 스님은 “법상선사는 30년을 대매산에서 연일 옷을 입고 송화가루만 먹으며 수행했고, 현사화상은 기운이 지탱할 만큼 밥을 먹고 하루종일 화두를 들었다”고 소개한다.

이에 비해 <소리없는 소리>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 뒤에야 나오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지혜와 기지가 반복된다. 특히 상(相)을 드러내지 말라는 서암 스님의 평소 가르침 때문일까, 지은이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시자 엮음’이라고 담아놓은 앞장을 보면 책장을 넘기기 전부터 예상치 못한 느낌을 받게 된다. 서암 스님은 서울에 오실때나 지방에 가실 때 값싼 통일호 열차

법문마다 촌철살인의 지혜·기치

고무신 꿰매자 “중노릇은 그렇게”

처를 이용했다. 의자가 딱딱해서 참선하기에 좋다는 것이다. 또 혹 빈방에 전등이라도 켜놓은 것을 발견하시면 “너희 아버지가 한국전력 사장이라도 되느냐”며 “시주는 스님들이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신도들이 피와 땀을 모아 내놓는 것인데 왜 불필요하게 낭비하느냐”고 불호령을 내렸다.

시자가 떨어진 고무신을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래, 중노릇은 그렇게 수수하게 하는 거다”라고 등을 두드린다.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행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참구하라고 가르친 점은 두 스님 모두 동일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인간 만사 마음먹기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

헤인 스님 지음
삼과 꿈 / 9천5백원



삶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헤인 스님(법심사 주제의 수필집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그동안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글과 평소 스님이 수행하며 깨달은 단상을 글로 옮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평온한 시간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냐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져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손에 넣고 우아한 생활을 즐겨도 마음이 평온할 수 없다면 숨이 막혀 풍족한 생활을 해도 짜증나고 지쳐버린다는 것이다.

반면 가난하거나 병들어 있어도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가치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므로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 “평온한 삶을 위하여”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소재를 다채하게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한번쯤 부딪혔을 고민과 평소 꿈꾸는 진지한 삶의 화두들이다. 그래서 빛바랜 일장경을 꺼내듯 정겹고 소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살뜰한 내용으로 가득찬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품었던 고민은 훌쩍 책장 밖으로 달아난다.

김주일 기자

새로 나온 동화책

동화로 읽는 청담 스님이야기

‘마음동자’

글 공광규 / 그림 현담 스님
화남 / 9천원



조계종 2대 종정과 초대 총무원장, 선학원 이사장 등을 지낸 청담 스님은 일찍이 성철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의 평화운동을 주도했다. <마음동자>는 청담 스님 열반 31주기 만에 동화로 일대기를 소개한 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담 스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와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스님들의 생명존중사상 담아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 김종상 / 그림 김재홍
파랑새어린이 / 8천8백원



옛 스님들의 생명존중 사상을 담은 어린이 그림책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는 사구계(四句偈) 형식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옛날 스님들은 좋은 신발을 두기도 영성한 짚신을 신었대요. 발레가 밟혀도 죽지 말라고’와 같은 식이다. 글자수가 적어 눈으로는 글방 읽혀지지만,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 여운이 오래 남는다. <동강의 아이들>의 그림작가 김재홍씨의 은은한 파스텔톤 삽화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남 돕는 일이 행복’ 깨닫게

‘꼬마 돌부처’

글 하오 광차이 / 그림 J 페리 / 박지민 옮김
예림당 / 8천원



어린이 그림 동화 <꼬마 돌부처>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귀여운 돌부처다. 별안간 번개를 맞고 산에서 굴러 온 돌! 그 돌은 다리 이쁜 사람들에게는 의자 구실, 우연히 만난 돌장이에게는 돌부처 즉 꼬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꼬마 부처님은 ‘남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커다란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바로 남의 어려움을 함께 하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시공사
2	화	탁 낮 한 명	진
3	유혹	성전스님	북로드
4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5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 나무
6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7	물은 담을 알고 있다 2	예모루 마사무	나무심는사람
8	월	탁 낮 한 명	진
9	니가 누구?	경봉스님	Human&Books
10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월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아문 전화: (02) 737-0695

고요이점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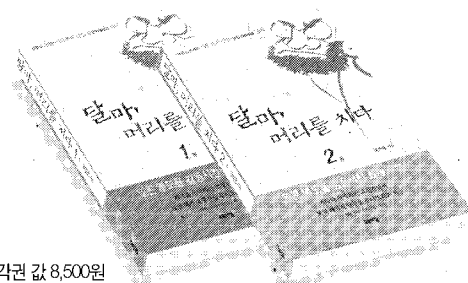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오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범의 선사가 있었다. 범회는 저 유병한 마조 도원을 찾아서 남과 같이 물었다. “어린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멀지 오나라.” 범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지마자 마조가 한 구어 귀어먹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온갖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내일 다시 오나라.”

—‘머리에서 빗어내려, 중에서

素空慧 지음 | 각권 값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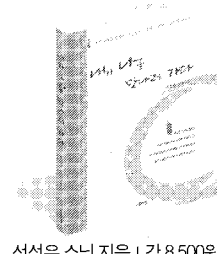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초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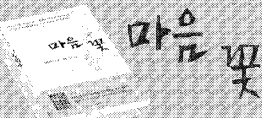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무심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말년 산. 북을 치어도 천 지 갈망도 없이 문장 구경 구경이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별이요 시이다. —종정법보 경허 큰스님 지음·법보출판사 2008년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 온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영호(법안지) 지음 |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000원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줄기이다. —종정법보 경허 스님 지음·법보출판사 2008년